

非 唯物的 哲學觀(六)

裴相河

그럼으로 그들에게는 네 宗教만 決斷코 所用업는 것이 되고 만다. 換言하면 宗教를 찾지 안는 사람은 人生 苦 갖지 안흔 사람이고 갖고 잇는 人生 苦를 甯기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 맞게 업다. 그러면 人生 苦를 甯기지 안는 것이 차라리 幸福됨이 安일까 宗教를 찾지 안는 사람이 돌이어 天國의 百姓이 아닌가라는 疑問이 생기기도 쉬읍지만은 이러한 사람은 돌이어 每日 每日 連겹피 飲食을 避치 못하는 사람과 가티 몹시 굶주린 뒤의 한술 밥과 몹시 목마른 뒤의 한잔 물의 快味를 永遠히 맛보지 못하는 平凡한 사람이라 할 수 잇슬 것이니 다시 말하면 언제이고 人生 苦를 甯길 쟈에는 돌이어 深刻하게 하는 일도 잇겟지만 한번 徹底히 人生 苦를 甯김으로써 闊세인 宗教를 엇고 搾하서 宗教속에 自己自身이 과못치어 光明, 勇氣, 歡喜, 恍惚..... 이 모든 樂園的 享樂 그 속에 살어볼 可望이업는 사람일 것이다.

筆者는 이곳서 萬一의 誤解를 豫防키 爲하야 『宗教』에 對한 筆者의 解釋을 알려두자 卽 以上에 累累히 말해온 나의 일으는 바 『宗教』는 成立宗教(既 成宗教) 例를 들면 예수敎라든지 佛敎, 바라몬敎 等과 가튼 一般的 意味에 잇서서의 宗教를 意味할 쏘 外에 더 範圍를 넉리 잡어 個人의 人生觀 쏘 는 한 時代어느 社會의 支配的 思潮 等도 包含할 수 잇는 가장 넓은 意味의 宗教이다. 그럼으로 筆者의 눈으로 볼 것 가트면 背神論者의 눈으로 볼 것 가트면 背神論者인 『니-체』일지라도 그의 超人이란 超神論을 가진 宗教家라 할 수 잇슬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自己自身の 生活을 規律할 수 잇는 思想을 自覺할 쟈에 그 思想이 闊 그에게는 宗教인 싸담이다. 映畫 『第七天國』을 記憶하시는 讀者는 아시려니와 그의 主人公인 『비코-』는 비록 下水道 掃除夫란 賤業으로써 物的 生活의 糧食을 엇는다 할지라도 限量업시 노픈 闊 限量업시 깨끗한 闊만을 쳐다 보는 그의 心的 生活은 下水道 掃除夫의 口에서 『나는 훌륭한 사나히다』라는 自負에 넘치는 信仰을 불으짓게 하고 잇다. 自己를 밋는 마음 自己의 理想을 徹底히 깨다른 마음 이러한 마음의

積誠과 努力과 勇氣와 自軍(自尊) 곳 宗教에 對한 獻心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럼으로 徹底한 人生觀은 單只 型式 上 宗教와 差異가 잇슬 썬이지 根本內
容에서 볼 것 가트면 조금도 거기에 相違가 업다고 할 수 잇는 것이다. 이
와 가티 筆者의 意味하는 宗教란 것은 가장 넓은 範圍로 알아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人生 苦의 甞김이란 어느 누구에게든지 普遍的 先天的으로 內在
함을 알 것이며 또 美的 愛나 形而上學的 要求와 가티 사람의 마음 가운데
自然的으로 썬리기피 박혀잇는 非唯物的인 것의 하나임을 記憶하여두자

五. 結 論

(綜合된 唯心 唯物論)

結論을 쓰는 것이 도리어 重複되는 것 같다. 웨 그러나하면 以上の 論述
에서 어셔한 論述이 生기겟다. 또는 生기지 안흐면 안되겟다는 推測썬이야
조금 頭腦가 明皙하신 讀者에게는 容易한 일인 까닭이다. 그러치만은 推測
이란 元體 普遍的이 적고 싸라서 誤測이 잇기도 쉬운 것이니 完全을 期기
爲하여 已往 썬오든 썬이니 썬까지 썬보련다. 耐久性 만흐신 讀者를 豫想하
면서.....

筆者는 以上과 가티 사람의 心的 內容을 分析함으로써 그 가운데 大概 『먹
는 것』·『아릿싸운 것』·『보히지 안는 것』·『괴로운 것』 등 네 가지 『것』에 對
한 避할 수 업는 要求가 잇슴을 알었다. 勿論 『먹는 것』이란 가장 根本的이
며 緊急한 問題이지만 다시 冷靜하게 生覺하면 그것은 單只 吾人의 生命을
物的으로 延長식키는 原動力이 될 싸름이라고 볼 수 잇스니깐 그것만으로써
는 到底히 完全에 갓가운 生活 더 나흔 生活을 要求할 수 업다는 것을 力說
해 온 세음이다. 다시 말하면 『먹는 것』이란 吾人의 物的 要求에 지나지 못
하지만 이 맞게 『아릿싸운 것』에 對한 悤임업는 憧憬 『보히지 안는 것』을
찾는 形而上學的 要求 『괴로운 것』을 避하려는 宗教熱 등 어느 사람에게든
지 不平等업시 所有되여잇는 心的 活動이 잇슴을 否認할 수 업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物的 要求와 心的 要求란 二元的 要求를 될 수 잇는대로 一
元으로 還元해버리려는 人間理性的 要求로 말미암아 唯物論에 잇서서는 物
로 唯心論이 잇서서는 心으로 各其他를 從屬化 또는 同一化 식켜버리려 하
지만은 이러한 還元은 (우리의 理性은 늘 分脂의 二元보담 一元의 統一을 要
求함은 事實이다.) 아모리 보아도 거기에 曲解와 無理가 업다. 고 할 수 업
는 것이니 根本에 잇서서 全然 混質的인 物心 兩元을 그 양 그대로 『物』이
면 『物』로 『心』이면 『心』으로 歸一해 버리려는 企圖는 마치 불과 물을 아모
『트릭』도 업시 그 양 相습하려는 헛動과 가튼 서로 協하고 서로 亡치는 結
果맞게 니루지 못하는 것이다.